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61호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 편집장 김현익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4면
외행성 중앙동아리 가인준 심의 부결

[심층] 》 5면
MZ세대론

[심층] 》 7면
서울캠퍼스 축제

[학술] 》 9면
호주와 중국의 무역갈등

외대와 함께 했던 김인철 총장 8년 여정의 마무리

김인철 총장이 이번 학기를 끝으로 8년 간의 총장직을 마무리 짓는다. 임기 동안 △교육△시설△학제구조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김인철 총장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3면에서 계속

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실
글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김규진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 수상해

지난 9월 김규진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서양어 · 노어 70)(이하 김 교수)가 체코의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the Jiří Theiner Prize)'을 수상했다. 이번 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의 역대 수상자 중 동양 국가 출신은 김 교수가 유일하다. 이르지 타이너 번역상 시상식은 지난 9월 24일 체코 현지에서 진행됐으나 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 교수의 수상은 지난 33년간 체코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20권이 넘는 체코 문학작품을 번역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김 교수는 1977년 우리학교 노어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체코학을 전공했다. 이후 1989년부터 26년간 우리학교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체코 문학 번역에 힘썼다. 재직 중엔 카렐 차페크의 소설 '별똥별' 등을 번역했으며 퇴임 이후에도 활발하게 번역 활동을 이어갔다. 미할 아이바스의 소설 '제2의 프라하'와 카테르지나 추포바의 만화 'R.U.R.', 카렐 차페크의 △'첫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압솔루트노 공장' △'두 번째 주머니 속 이야기' △'크라카티트' 등 7권의 체코 문학작품을 번역했다. 현재는 △여러 대학과 각종 문화 단체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여행에 대한 특강△여행기 및 자서전 집필△체코 문학 연구 및 작품 번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 교수는 "해마다 유럽 및 러시아 등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해외학자와 교류하며 체코 문학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게 번역에 큰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 분야에 매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테니 전공을 중심으로 뜻을 세워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의 수상 소식을 접한 유민지(동유럽 · 체코 21) 씨는 "문학작품 번역은 언어 구사 능력만으로 할 수 없기에 김 교수님이 체코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됐다"며 "이를 본받아 앞으로 많은 사람이 체코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2006년 오랫동안 체코학을 해외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체코 정부로부터 '아기타 그라티아스(Agita Gratias)' 훈장을 받았으며 이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부총장△동유럽대학 학장△동유럽발칸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해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이 경찰청 외사국과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학교 특교원은 외사국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몽골어△스와힐리어△이란어△폴란드어 등 11개 언어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학교 특교원과 경찰청 외사국은 경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 대상 언어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이 특수외국어의 활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구 우리학교 특교원 원장에 따르면 특수외국어 교육은 해당 언어권의 전문적인 지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특교원이 우리학교의 특수외국어 전공생 뿐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특수외국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임을 강조했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이번 협약이 외사경찰뿐 아니라 모든 경찰관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문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치안 접근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유다은(아시아 · 마인어 21) 씨는 "특교원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치안 안정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특수외국어의 공익적 쓰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8일 교육부는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해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단 목표를 보인 바 있다. 계획안엔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특수외국어 전공 대학(원)생 경제적 지원△특수외국어 교육을 원하는 일반인 대상 지원△분야별 특화된 외국어 전문가 양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우리학교 이번 달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해

지난달 8일 우리학교는 중간고사 이후 학부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번 달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수강정원이 40명 이하인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확보했단 이유로 각 대학에 대면 수업 확대를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우리학교 외에도 △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숭실대학교 등을 시작으로 많은 대학이 대면 강의를 확대 중이다.

학부 수업 방식 변경으로 학교는 학내 방역 체계를 강화했으며 학생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27일 행정지원처는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각 건물 입구 및 강의실 내 손소독제 비치△교수회관 · 학생식당 수용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강화△모든 건물 및 강의실 1일 1회 소독△출입구 혼잡 예방을 위한 발열 및 QR체크 기기 증설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폐쇄됐던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야외 탁자△운동장△잔디광장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농구장△소운동장△대운동장도 전면 개방된다. 이번 달 1일부터 설캠 인문과학관 내 학생식당은 조식 판매를 재개했다. 글캠의 경우 학생 통학버스 운영이 재개돼 종강 전까지 이용 가능하다.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백년관 열람실 및 GPS 라운지△승차장 쉼터도 개방했으며 대부분의 운영 복지매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설캠 기숙사 국제학사와 글로벌홀, 글캠 기숙사 홉스돔에선 대면 수업 확대에 따라 사생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메일을 통해 공지됐다.

교내 다중 이용 시설은 여전히 폐쇄된다. 설캠의 경우 △교수학습개발원 멀티프라자△교수회관 세미나실 · 강연실△대학원 세미나실△본관 회의실△브릭스(BRICs)문화관과 같은 행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글캠은 △세향관 및 소극장과 같은 행사시설△스터디룸△어문학관 멀티프라자를 이용할 수 없다. 관리 주체가 명확한 양캠퍼스(이하 양캠) 단과대학 학생회실은 개방됐으나 항시적 관리가 어려운 학과 세미나실과 동아리방은 폐쇄가 유지됐다. 양캠 모두 무용실과 헬스장은 실내 체육시설 방역 관리 문제상 수업 시간을 제외하곤 개방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엔 비대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로 설캠 △교수학습개발원△도서관△본관△사이버관△사회과학관△인문과학관이 지정됐다. 글캠은 △백년관△어문학관△교양관△자연과학관△인문경상관△공학관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는 "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우들의 주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 인근 주거 시설과의 제휴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서현(자연 · 생명 19) 씨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력이 향상된단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교를 1년 넘게 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학교에서 동기를 만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학생들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김해인(동유럽 · 폴란드 18) 씨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이어진 경우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불편하다"며 "과방과 동아리방이 폐쇄돼 과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단 점도 속상하다"고 대면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우리학교, 2021 모의유럽연합 개최해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2021 모의유럽연합(이하 모의유럽연합)'이 개최됐다. 이번 모의유럽연합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우리학교 각 대학의 장모네 EU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보건 안보(Health Security)'를 주제로 열린 이번 모의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장관급 회의인 유럽연합 이사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전국 10개 대학 학생 29명이다. 참가 학생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모의유럽연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청중 없이 토론 참여 인원만 현장에 참석했으며 비대면 생중계됐다.

모의유럽연합은 김시홍 우리학교 장모네 EU센터 소장(이하 김 소장)의 축사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이하 페르난데즈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김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연합은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오랜 교류와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기에 이번 모의유럽연합이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보건이 주제인 만큼 학생들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이 나오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연합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협동과 믿음이다"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유럽연합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번 회의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 모의유럽연합 참가자 및 관계자

이번 모의유럽연합의 주요 내용엔 △유럽 보건 연합에서 사용하는 기여금 및 기부금 조달과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유럽연합 국가의 백신 접종률△유럽연합 내 의약품 및 이동 장비 유통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이(e)헬스 및 유럽 건강 데이터 영역 공동 생성 등이 포함됐다. 참가 학생들에겐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가 참가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세 명의 학생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상 3명은 각 대학 EU센터장 상을 수여받는다. 최우수상을 받은 에두아르드 쿠즈멘코(국제 21) 씨는 "라트비아의 대표로서 나 자신이 실제 유럽연합 국가의 장관이란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학생들과 협동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행사를 관람한 재학생 A(서양어 · 프랑스어 19) 씨는 "특정 전문가의 개입 없이 오로지 학생들의 협동이 중심이 돼 모의유럽연합이 진행됐단 사실이 흥미롭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7년 시작된 모의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정치 및 입법 절차에 대한 모의 대회로 지난 3년간 우리학교 오바마홀에서 개최됐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중국언어문화학부, 데이터 아카이브 정식 운영해

우리학교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이하 중언문)가 지난달 18일부터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박정원 우리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장(이하 박 교수)이 직접 제작한 시스템으로 △비교과 영상강의 프로그램△수강 인증서 발급 시스템△졸업논문△중국문화 콘텐츠△중국어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호스트 응용 프로그램과 서로 응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플러그인(Plug-In)을 이용했으며 학생의 접근성을 감안해 개방형 및 반응형으로 제작됐다. 또한 학과 강의에서 생성된 정보를 △영상△이(e)북△지도△통계 등으로 분류해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유형화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문학 교육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아카이브를 제작했다"며 "휘발성적인 교육 데이터와 교육 전략을 관리하고 통합함으로써 학과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육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언문은 데이터 아카이브 외에도 졸업논문에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데이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단 목표다. 이에 박 교수는 "학과에서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아카이브가 우리학교 어문학 교육의 경쟁력으로 고도화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언문의 중급중국어 강의를 수강 중인 이정민(중국학 · 중언문 20) 씨는 "수업에서 데이터 아카이브 내 멀티미디어 이(e)북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중이다"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데이터 아카이브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언문에선 매해 데이터 포트폴리오 대회를 개최해 시상하고 우수작을 데이터 아카이브에 서비스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양원희 다이룸 대표, 설캠 도서관에 미술 수예품 기증해

지난달 18일 양원희 다이룸 대표(이하 양 대표)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이하 설캠 도서관)에 미술 수예품을 기증했다. 이날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가정준 대외협력처장△윤경욱 대외협력부처장△이성하 설캠 도서관장(이하 이 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기증에 대한 보답으로 양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 이후 양 대표는 이 관장의 안내로 작품이 설치된 1층 로비를 비롯한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예품은 '산치오 라파엘로(Sanzio Raffaello)' 이탈리아 화가(이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자수로 만든 작품이다. 해당 수예품은 가로 185cm, 세로 152cm로 제작된 대형 작품이다. 양 대표는 "우리학교 도서관이 아테네 학당처럼 △사유△지혜△학문을 바탕으로 인류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대학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됐으면 한다"며 "작품을 감상한 학생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증 이유를 밝혔다. 이 관장은 "손으로 한땀 한땀 수를 놓은 자수화는 원작인 프레스코화와 다르게 생생한 입체감을 준다"며 훌륭한 예술품을 도서관 입구에 비치할 수 있도록 기증해준 양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양 대표의 수예품 기증 소식을 접한 박수은(사회 · 행정 19) 씨는 "우리학교 도서관에서 정성스런 자수 작품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도서관이 한층 기품있어졌다"고 전했다.

아테네 학당은 △소크라테스△아리스토텔레스△유클리드△조로아스터△플라톤△피타고라스 등 시대를 대표하는 54명의 △수학자△천문학자△철학자가 그려진 작품이다. 고전 건축의 △균형감각△선명성△전체적인 조화△질서가 뛰어난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으로 라파엘로의 그림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10.18(월) ~ 10.29(금)	2021.11.22(월) ~ 12.03(금)
고사장 발표	11.03(수) 15:00	12.08(수) 15:00
면접전형	11.06(토) 10:00 예정	12. 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17(수) 15:00	12.22(수)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2(월) ~ 11.26(금)	12.27(월) ~ 12.31(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 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와 함께 했던 김인철 총장, 8년 여정의 마무리

2014년 2월 25일 취임한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이 약 8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김 총장은 임기 기간 동안 △글로벌캠퍼스 인프라 개선△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신입생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이하 R·C)프로그램 개설△융합전공 신설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 동안의 임기를 돌아보며 김 총장이 이룬 성과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Q1. 안녕하세요, 김인철 총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10대 및 11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인철 교수입니다. 76학번으로 우리학교에 입학했으며 행정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Q2. 임기 기간을 돌아봤을 때 8년이란 시간이 총장님에겐 어떤 의미였나요?

지난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13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물가상승의 여파로 많은 대학이 재정난을 경험하듯 우리학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온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학교의 재정 여력을 제고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Q3. 제 11대 총장선거에서 내세웠던 3가지 원칙인 △공정한 거버넌스△단순한 행정 시스템△지속가능한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거버넌스 측면에선 구성원 간 소통 및 참여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수들과 △교무위원회△교수협의회(이하 교협)△교수회의△대학평의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후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학교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부서별·사안별 학교-학생 협의체 활용△세 차례에 걸친 학교-교협 대 토론회△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의 요구와 고민을 듣고자 했으며 거버넌스가 실질적 문제해결 창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직원사회와의 소통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학교는 노조 파업 같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호신뢰 회복을 통해 임기 중 단체교섭·임금을 평화적으로 체결했고 현재는 학교와 직원 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부합니다.

행정 시스템 부문에선 IT부서의 인력 강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없는지 남은 기간 동안 학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은 제 11대 총장선거 당시 역점을 둔 공약입니다. 이에 △교육혁신△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응△미래 선도형 융복합 교육모델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더 강한 외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및 기부금 수입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등록금 수입에 의존했던 기존 재정구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글로벌 융복합대학이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미래 선도형 융복합 교육모델 개발 및 혁신을 목표로 한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을 신설해 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제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학교의 통번역대학원 및 통번역센터는 산관학 협동형 교육 강화 모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Q4. 가장 의미 있는 공약과 아쉬웠던 공약이 궁금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공약을 꼽자면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캠퍼스 특화발전에 기여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캠퍼스 스마트도서관과 세계박물관을 신·증축하기 위한 설계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도캠퍼스는 창의적 혁신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추진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글로벌 지역경영학과 신설△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바이오메디컬공학부 이전△외국인 중심 글로벌자율학부 신설 등 새로운 학제를 송도캠퍼스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학평가 관련 사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학교는 수년간 각종 대학평가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평가지표가 매해 바뀌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쉽지 않습니다. 인문사회 기반 대학이란 제약 속 순위 상승을 위해선 교수 연구실적 향상이나 획기적인 학생장학금 확충이 필요합니다. 대학재정 여력을 개선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습니다. 13년 간의 등록금 동결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해도 재정확충 미비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Q5. 남은 임기 동안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약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선 서울캠퍼스의 △국제학교 신설 준비△단과대학 개편△신입생 모집 광역화△일부 단과대학 통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의 △도서관 리모델링 착수△어문계열 단과대학 학제개편△융인대의 정착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캠퍼스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해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차기 집행부가 결실을 맺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Q6. 21세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측면에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가장 혁신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세계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게 그 예입니다. 이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프랑스 국립 동양어대학교(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 도쿄외국어대학교(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교(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와 더불어 동북아 3대 외대로 손꼽히는 국내 최고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특수전략어 사용 국가의 국내외 네트워크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 내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민간 외교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Q7. 글로벌캠퍼스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R·C 체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양캠퍼스 간 균형을 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캠퍼스를 포함한 세 캠퍼스 모두 균형을 맞춰 성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방안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2014년 우리학교는 이원화캠퍼스로 새롭게 출범한 이래 미래형 융·복합 종합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양캠퍼스의 장점을 함께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서울캠퍼스의 인문·사회 학문△글로벌캠퍼스의 융합인재 육성과 사회 종합적 학문△송도캠퍼스의 외국인 유치를 기반으로 한 첨단 학문을 탐구해 세 캠퍼스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다면 세 캠퍼스 모두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8.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학교 재정과 관련한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이 증가하며 학교의 지출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결된 등록금만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학사구조개편도 힘든 과제였습니다. 학사구조개편의 △계획안△방향△의제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원만한 소통을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근차근 해결할 예정입니다.

Q9.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측의 입장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방안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총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생의 성적 평가방식을 전면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학교의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해 학점 산정이 느슨하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젠 졸업생들이 새로워진 학점 산출 방식으로 취업시장 내에서 불리해졌단 지적을 받을 정도로 학점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게 된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를 음주 청정 지역으로 만든 것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측의 입장을 조율해 얻어낸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IDS(International Diplomatic Scholarship) 장학사업을 신설 및 추진해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 140여명의 인재를 우리학교 학부생으로 길러내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Q10. 차기 총장이 우리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선하면 좋겠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재정 여력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의 외부연구비 수주 확대△발전기금 유치 확대△수익사업 확대△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차기 총장이 명예롭고 품격있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임 총장에 대한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Q11. 퇴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임 직후 일본과 미국 자매대학에 4개월 정도 체류할 작정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이나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bbb Korea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 곳에서도 시간을 더 할애하려 합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시민검찰위원장 역할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행정학과 제자들을 오랫동안 지도하지 못한 여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학과 재학생을 매주 2명씩 함께 점심을 나누며 진로상담을 겸해 인생 경험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십수년간 거의 돌보지 못한 가정과 가족에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12. 마지막으로 외대학보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임 총장 선출은 새로운 리더십의 선택입니다. △교수△직원△학생이 합심해 선택한 새 총장이 학교 발전을 향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 세워주고 있는 17만 동문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교를 지원하고 후배에게 용기와 힘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재학생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 계신 훌륭한 교수님과 교류를 통한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외행성 가인준 부결, 무지개가 드리울 곳은 어디에

지난달 6일 줌(Zoom)을 통해 이뤄진 하반기 제1차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이하 외행성)의 중앙동아리 가인준 등록이 부결됐다. 외행성은 다음날인 7일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봉사2분과위원장(이하 종교2분과장)의 월권 행위와 부당한 차별이 있음을 규탄한 성명서를 냈다. 이에 △종교2분과장△종교2분과 소속 기독교 동아리 'IVF' 회장△설캠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이하 동연)이 차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행성의 중앙동아리 가인준 부결 과정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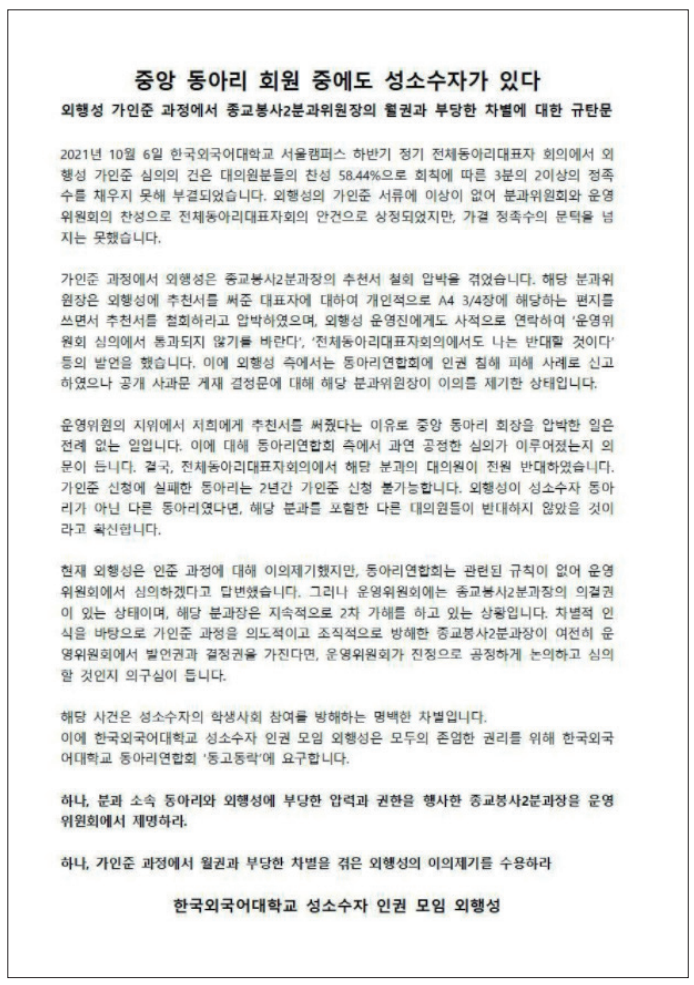
◆가인준 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한 압박과 인권 침해

지난달 7일 외행성은 종교2분과장의 추천서 철회 압박 사건 입장문과 그에 대한 규탄문을 발표했다. 외행성에 따르면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2분과장은 동아리 가인준을 위한 추천서를 써준 IVF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등 지속적인 추천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동연 운영위원이기도 한 종교2분과장은 외행성 운영진에게도 사적으로 연락해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길 바란다"며 "전동대회에서도 난 반대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외행성은 입장문을 통해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추천서를 써줬단 이유로 중앙동아리 회장을 압박한 일은 전례가 없다"며 "과연 공정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가인준을 원하는 동아리는 동연 산하 각 분과위원회 소속 1개 이상의 중앙동아리 회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춰지면 해당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신규등록이 전동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회의에서 재적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가인준이 이뤄진다. 결국 종교2분과에 속한 7개의 기독교 동아리와 1명의 분과위원장이 모두 가인준 반대 표를 던졌고 △찬성 45표△반대 15표△기권 17표로 찬성표가 전체 성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외행성 측은 종교2분과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동연 측에 인권 침해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가인준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같은 날 종교2분과장은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하 에브리타임)을 통해 외행성 주장에 대한 반론의 글을 세 차례 올리고 외행성과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 종교2분과장에 따르면 종교2분과는 크고 작은 안건에 대해 토의를 통해 결정하는 오랜 전통이 있고 동아리 추천서 역시 토의를 통해 결정해왔다. 하지만 IVF 회장이 분과 내 타 동아리와 상의 없이 외행성 가인준을 위한 추천서를 썼다고 한다. 분과 내 한 동아리장이 외행성에 추천서를 써줬단 사실을 알게 된 몇몇 동아리는 종교2분과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그는 분과 내 평화수호를 위해 IVF 회장에게 추천서 취소 요청서를 써줄 것을 부탁했고, IVF 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IVF 회장이 뜻을 바꿔 추천서 취소 요청서 작성을 철회하자 종교2분과장이 IVF가 외행성 추천서에 서명한 사실을 분과 내 타 동아리에 알렸다고 한다. 종교2분과장은 일련의 과정이 모두 IVF 회장과 외행성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음을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이나 인권침해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IVF 회장도 곧바로 에브리타임을 통해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 따르면 종교2분과장은 분과 소속 동아리의 추천서가 분과의 대표성을 지닌단 이유와 종교2분과의 평화 수호를 이유로 추천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IVF 회장은 분과 소속 동아리의 추천서가 분과의 대표성을 지닌단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외행성과 동의가 되면 철회서를 쓰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연에 문의한 결과 개별 동아리 회장의 추천서가 분과를 대표하지 않는단 사실을 알게 됐고 종교2분과장에게 철회서를 쓰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종교2분과장은 IVF 회장에게 철회요청서 작성을 부탁하는 편지와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철회서 작성을 회유했다. 하지만 IVF 회장이 같은 동아리의 전 회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이번해 9월 8일까지 단 한번도 동아리 추천서와 관련해 종교2분과장과 논의를 나눈 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IVF 회장은 '동연 인권 침해사건 대응 세칙' 을 근거로 중단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종교2분과장은 회유를 멈췄다. 동연은 진상조사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종교2분과장의 지속적인 추천서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동아리장의 개인 의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종교2분과장에게 동연 회원자격 제명처리 징계를 결정했음을 전했다.



중앙 동아리 회원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외행성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봉사2분과위원장의 월권과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규탄문

2021년 10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반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 외행성 가인준 심의의 건은 대의원분들의 찬성 58.44%으로 회칙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외행성의 가인준 서류에 이상이 없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가결 정족수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가인준 과정에서 외행성은 종교봉사2분과장의 추천서 철회 압박을 겪었습니다. 해당 분과위원장은 외행성에 추천서를 써준 대표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A4 3/4장에 해당하는 편지를 쓰면서 추천서를 철회하라고 압박하였으며, 외행성 운영진에게도 사적으로 연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도 나는 반대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외행성 측에서는 동아리연합회에 인권 침해 피해 사례로 신고하였으나 공개 사과문 게재 결정문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운영위원의 지위에서 지희에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중앙 동아리 회장을 압박한 일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과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해당 분과의 대의원이 전원 반대하였습니다. 가인준 신청에 실패한 동아리는 2년간 가인준 신청 불가능합니다. 외행성이 성소수자 동아리가 아닌 다른 동아리였다면, 해당 분과를 포함한 다른 대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외행성은 인준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했지만, 동아리연합회는 관련된 규칙이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는 종교봉사2분과장의 의결권이 있는 상태이며, 해당 분과장은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인준 과정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종교봉사2분과장이 여전히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진다면, 운영위원회가 진정으로 공정하게 논의하고 심의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 사건은 성소수자의 학생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은 모두의 존엄한 권리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에 요구합니다.

하나, 분과 소속 동아리와 외행성에 부당한 압력과 권한을 행사한 종교봉사2분과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하라.

하나, 가인준 과정에서 월권과 부당한 차별을 겪은 외행성의 이의제기를 수용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

▲외행성 가인준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규탄문(출처: 외행성)

◆가인준 부결을 둘러싼 논란

외행성 측은 이번 가인준 부결 사건을 단순히 종교2분과장 개인의 월권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단 입장을 전했다. 전동대회에서 나온 투표 결과와 종교2분과장의 추천서 철회 압박 행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단 것이다. 이에 외행성은 동연 측에 전동대회 가인준 동아리 심의의 건 부결에 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회칙 제29조 상 각 동아리대표자들은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원으로서 전동대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즉 회원은 개인의 신념보다 동연 전체를 우선시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외행성 주장에 따르면 일부 전동대회 의원 및 종교제2분과는 외행성의 운영안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가인준을 반대했다. 외행성 측은 "우리가 성소수자 동아리가 아니라면 종교제2분과를 포함한 다른 대의원분들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자치활동 참여 과정에서 △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국적△사상△인종△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단 회칙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행성은 동연 측에 동아리 대표자들이 회원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비토권과 기권을 행사한 회원들이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인준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와 동연 정신에 어긋난 투표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의 제기를 수용해 임시 전동대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연은 이의제기서 결정문에서 대의원의 투표 행사는 민주적으로 진행됐으며 의결의 결과만으로 회칙 제 1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기에 외행성의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외행성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추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이뤄진 건 종교2분과장의 재명 뿐이다"며 동연의 대처를 비판했다.

김나현(영어 · ELLT 18) 씨는 "전동대회에 참여해 본 전직 중앙동아리 회장으로서 가인준 안건 의결이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인지 알고 있다"며 "회칙에 명시된 인준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문제가 될 만한 질의응답이 오가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 동아리는 인준이 되고 외행성은 부결됐는지, 차별적 시선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전동대회에서 회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다른 의견을 냈단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회장들이 그 근거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인준 부결, 그 이후

가인준이 부결된 외행성은 회칙 제137조 2항에 따라 향후 2년간 중앙동아리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전동대회에서의 부결은 회칙상 이의제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이의제기는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 동연의 재량으로 허용됐다. 외행성 측은 동연에 '2년간의 신규등록 금지' 와 관련해 본회의 회칙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동연은 입장문을 통해 회칙 제137조 2항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전동대회에 개정 안건을 상정해 회칙 개정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회칙을 개정해 부결 이후 가인준 동아리에 대한 처우 정비를 약속했다.

외행성 관계자는 학내 성소수자에 대한 안전한 공간 확보와 세미나 자료 및 현수막 등 물품 보관 가능 공간 확보를 위해 중앙동아리 등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동아리 인준을 통해 단순히 성소수자의 결집만을 목표로 하기 보단 성소수자 가시화를 통해 비성소수자와 성소수자의 공존방향을 모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낯선 존재인 성소수자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곁의 존재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며 "그 변화의 첫걸음으로 외행성이 학내 정식 중앙 동아리로서 인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외행성은 평등한 외대를 위해 개인과 단체에게 '가인준 과정에서 종교2분과장의 월권과 부당한 차별에 대한 규탄문' 에 연서명이나 대자보로 함께 해줄 걸 요청했다. 이에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AKHUA)' △고려대학교 학생 · 소수자 인권위원회△우리학교 여성주의 학회 '주디' 등 총 66개 단체 및 설캠 구성원 214명이 참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큐이즈(Queer IN SNU)' 는 동연에 이번 사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큐이즈는 의견서를 통해 "학내 성소수자의 '쉘터(Shelter)' 인 성소수자 동아리의 존재는 개인의 신념으로 부정될 수 없으며 그 운동의 흐름은 더 이상 저지될 수도 없다"며 "동연의 조속하고 현명한 해결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더 평등한 대학문화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행성은 이 같은 연대에 대해 감사를 표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학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수호해나가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학내 성소수자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MZ세대’ 열풍, 그 양면성을 돌아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MZ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제1야당 대표 선출부터 사무직 노조 활성화까지 사회 곳곳에서 MZ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Z세대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세대 간 갈등△선동△편견 등의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MZ세대론에 대한 △정의△논의△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새로운 청년담론으로 부상한 ‘MZ세대론’

세대란 사회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특정 역사적 시기를 함께 경험하면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집단적 특성을 지니게 됨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출생 시기에 따른 세대는 △산업화(1940~1954년생)△베이비부머(1955~1963년생)△386(1960~1969년생)△X(1970~1980년생)△Y 및 밀레니얼(1981~1996년생)△Z(1997년생~) 세대로 구분된다.

최근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MZ세대’란 새로운 세대 개념이 등장했다. MZ세대는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청년층으로 구성되며,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2019년 기준 총 1,79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7%를 차지한다. MZ세대의 특징은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최신 유행을 추구한다. 이들은 SNS를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공유하며 △집단보단 개인의 행복을△소유보단 공유를△계획보단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또한 MZ세대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인 측면에선 전통적인 이념보다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MZ세대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여겨지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MZ세대란 단어가 포함된 기사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9월 400여 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 3월엔 1,092건으로 급등했다. 이후 MZ세대를 언급한 기사 건수는 △4월 1,263건△5월 1,523건△6월 2,075건△7월 2,251건으로 급증했다.

◆MZ세대를 바라보는 양립된 시선

MZ세대론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MZ세대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외대학보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MZ세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46.2%가 ‘긍정적’, 53.8%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MZ세대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론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점이 조명됨에 따라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고 생각해서’△‘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증거라고 생각해서’△‘동일 세대 내 연대, 공동체 의식이 향상된다고 생각해서’란 응답이 각각△71.4%△64.3%△21.4%로 나타났다. ‘MZ세대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론 응답자의 △66.7%가 ‘기성세대에 의해 규정됐다고 느껴져서’△58.3%가 ‘다른 세대 간 차이, 갈등을 부추긴다고 생각해서’△41.7%가 ‘특성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MZ세대론은 우리 사회의 징후와 특정 세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단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임채영(중국·중언문 19)씨는 “MZ세대에게 씌워진 특징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굳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MZ세대론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단 것 또한 장점이다. 그 증거로 MZ세대를 향한 대선 주자들의 맞춤 공약을 들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 4일제 공약을 필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의 연간 2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지급△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무주택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등의 공약이 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MZ세대를 ‘민지’와 ‘민준’으로 의인화해 소통하는 홍보 전략을 취하는 등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동일한 세대 내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단 장점도 존재한다. △삼성△현대△SK△LG 등의 대기업에서 성과급 논란이 일었던 이번 해 초엔 MZ세대가 주축이 돼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노조) 설립을 주도한 바 있다. 그간 성과금과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없었던 사무직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연대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수평적 구조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MZ세대 노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노동 운동에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MZ세대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먼저 MZ세대론이 집단의 정체성을 임의로 재단해버려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한단 비판이 존재한다. 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사회, 역사적 지위는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소에 불과하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동일 집단 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MZ세대 내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88.9%가 ‘예’, 11.1%가 ‘아니오’라 답했다. ‘어떤 간극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엔 응답자의 △41.7%가 ‘자산’ △20.8%가 ‘소득’△12.5%가 ‘주거’를 꼽았다. 김미정(상경·국통 19)씨는 “MZ세대는 아낌없는 소비를 하며 욜로(You Only Live Once)의 삶을 추구한단 인식이 퍼져있지만 이는 모든 MZ세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도 존재한다”며 “현재 퍼져있는 MZ세대론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MZ세대의 범위와 그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세대 이론의 초석을 제시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은 각 연령 집단엔 다수의 세대적 단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단위 자체론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MZ세대란 단어로 2030을 한데 묶는 요즘의 사회 풍토를 받아들이기 어렵단 의견이 존재한다.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MZ세대를 묶어 여론조사를 진행하거나 통계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지만 그 결과의 오차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한 언론사가 MZ세대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단 분석을 담은 기사를 내놨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30대에서 40대까지의 소득을 한데 묶어 평균 통계를 낸 것이다. 이에 통계 오차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세대 세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세대론은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단 의견도 존재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MZ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2.3%가 ‘예’라고 답했다. 이어 ‘MZ세대론이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가 ‘매우 그렇다’,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방향

MZ세대의 대표성을 끌어올려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좀 더 세분화된 세대 구분이 필요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지난해부터 MZ세대를 1989년을 기준으로 전기, 후기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 지어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촘촘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세대론 연구를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Z세대에 대해 과도한 편견과 일반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대갈등은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져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세대차이가 과거에 있었던 세대차이보다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접점 마련을 바탕으로 한 상호 소통과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우 인제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세대 간의 접점이 사라지면서 세대 간에 상호 소통하고 이해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대 갈등의 해법으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의 조속한 확산과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공유 주택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MZ세대 내에서의 불평등과 차이 또한 점차 커져가는 추세다. 이 교수는 “각종 사회와 조직 문화 자체를 시대 변화에 적응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좁아진 기회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정책 또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Z세대론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2022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10.11(월) ~ 10.25(월)	2021.11.15(월) ~ 11.29(월)
고사장 발표	2021.11.03(수) 15:00	2021.12.08(수) 15:00
면접전형	2021.11.06(토) 10:00 예정	2021.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11.18(목) 15:00	2021.12.23(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11.22(월) ~ 11.26(금)	2021.12.27(월) ~ 12.3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신설(논문·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 그 곳, 파리에서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파리 7대학(Paris Diderot Université)의 교환학생으로 파리에서 생활했다. 프랑스어를 전공하며 현지에 꼭 가고 싶어 교환학생 준비를 일찍 시작했다. 프랑스 유학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다. 프랑스에서 사용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미래에셋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해외교환 장학생'에 선발돼 파리로 갈 수 있었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표는 전공어 실력 향상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프랑스어를 접하려 노력했다. 현지 대학생과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에 들어갔고 최대한 많은 현지인과 교류했다. 프랑스에선 학생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현지에서도 일을 했다. 덕분에 현지 체류 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업무 중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프랑스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추억은 한식당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과의 일이다. 그분은 내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유학생활이 생각난단 말과 함께 13만 원가량 되는 팁을 쥐어줬다. 그날의 만남은 내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동경하는 도시였던 파리에 입성한 후 매 순간이 꿈같았다. 불편한 게 가득했지만 대중매체에서나 볼 수 있던 광경이 생생히 눈에 들어와 만족스러웠다. 오래된 건물과 조형물에서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다.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는 외로운 타지 생활의 큰 힘이 됐다.

프랑스에선 외국인 학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각종 전시회나 교통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난 근로소득이 잡혔기에 매달 35만 원 정도의 주거 보조금이 나왔다.

국물 요리가 그리울 땐 베트남 음식점을 가보길 추천한다. 또한 프랑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와인을 즐길 수 있다. 6천 원이면 마트에서 다양한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는 언어 실력엔 한계가 존재한다. 늘어난 의사소통에만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파리는 다양한 유학생이 생활하는 도시다. 각자의 △목표△상황△성향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자기가 한 만큼 성과를 얻어갈 수 있다.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순 없어도 장기적으론 인생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프랑스 유학 생활을 즐기다 오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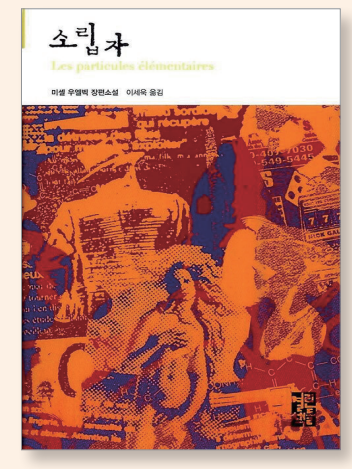
안병현(국제지역 · 프랑스 13)

읽어서 세계속으로

프랑스

<소립자>

- 사랑할 줄 모르는 세대의 슬픔 -



'미셸 우엘벡' 은 현존하는 프랑스 작가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일 것이다. 1958년 프랑스령 라 레위니옹 섬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농업 경제학과 정보학을 공부한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국회 비서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1994년 첫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그의 소설은 늘 경제적 요건에 종속되고 성과 소비문화에 중독돼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아 서구 자유주의 물결의 이면을 다뤘다. 특히 작가는 경제적 · 성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고통받으며 체제에서 탈락하는 남자의 내면을 날카롭게 그려낸다. 1998년 발표한 소설 '소립자' 는 이런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시켜 프랑스 사회에 상당한 논란을 낳았다.

주인공 '브루노' 와 '미셸' 은 어머니가 같은 이부형제다. 1950년대 당시 프랑스로 유입된 자유로운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어머니는 브루노와 미셸에게 충분한 보살핌이나 사랑을 주지 못한다. 두 형제는 정반대의 외모와 기질을 지녔다. 할머니 손에 자란 브루노는 작고 뚱뚱했으며 친구가 없었다. 심한 애정 결핍을 앓던 브루노는 항상 친구와 애인을 갈망하며 성적 환상에 몰두한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그가 유일하게 몰두했던 일은 글쓰기였다. 반면 조각 같은 외모를 지닌 미셸은 수학과 과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이 결여됐다. 사랑을 할 수 없단 점에서 두 사람은 닮았다. 사랑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브루노는 결핍의 산물인 글을 얻었으나 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미셸은 뛰어난 과학자가 되지만 끝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롭게 진화한 인간종을 연구하다가 실종된다.

소립자가 출간됐을 무렵 프랑스 문단은 엄청난 논쟁에 휘말렸다. 1968년 프랑스 사회변혁 운동의 주연인 '68세대' 의 자손이자 사랑을 할 수 없단 설정을 가진 브루노와 미셸이란 캐릭터 자체가 프랑스 좌파가 자랑스런 역사로 기억하는 '68혁명' 의 비판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던 68세대는 자본주의의 비호 아래 물질주의와 성적 타락에 경도돼 자식 세대에게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단 것이다. 프랑스 문단에서 벌어진 이 소요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상기시킨다. 자유와 정의를 기치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486세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어른 세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자식 세대는 누구보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혐오의 시대 속에서 나와 다른 자를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의 시대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세대 갈등을 비춰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④ 글캠 하늘에 무슨 129

▲글캠의 모로라

▲공수부대 4컷 만화

▲특전사 고공낙하 훈련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가끔 오로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단 말이 믿기 힘들 수 있다. 사실 이는 오로라가 아니라 글캠을 감싼 정광산 뒤편의 곤지암 스키장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돼 발생하는 현상이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만 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빛을 모현의 오로라, 일명 '모로라' 라고 부른다. 겨울철 모현읍의 날씨를 시베리아에 비유한 '모베리아' 란 별칭과 비슷한 어감으로 지어진 학생들의 애칭이다.

사실 글캠의 하늘에 나타나 학생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건 모로라 만이 아니다. 강의를 듣던 학생이 하늘에 떠다니는 낙하산에 시선을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캠퍼스 상공을 활보하는 낙하산의 정체는 무엇일까? 낙하산의 정체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Special Warfare School)의 정기 교육 중 하나인 정기고공강하(HALO) 훈련이다. 이는 낙하산 강하를 훈련받는 특전사가 공수기본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하는 훈련이다. 특수전학교는 우리학교 바로 옆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낙하산을 매고 훈련하는 특전사의 모습이 글캠에서 종종 목격되는 것이 그 이유다. 가끔 글캠 운동장에 낙하산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 학교와 특수전학교가 근접하게 위치해 벌어지는 소소한 일화다. 사실 군인과 글캠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외대학보 제 504호에 의하면 1988년 11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글캠에 공수부대원 20여 명이 나타나 집단 난동을 부렸단 기록이 있다. 완전무장 상태에서 학교 뒷산을 통해 내려온 부대원들은 무단 침입에 대한 학생의 항의에도 20여 분 간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진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서울캠퍼스 축제 퀸쿠아트리아 하이브리드,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축제인 '퀸쿠아트리아 하이브리드'(이하 퀸쿠아트리아)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온라인 송출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모습을 비춘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축제 컨셉 아이디어 공모전'과 '문화사업세미나'를 통해 재학생 의견을 반영하며 △'외대 갓 탤런트'△'외굿디공'△'이(e)-스포츠 대회'△'29초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퀸쿠아트리아의 진행 방식과 이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을 알아보자.

◆제한적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퀸쿠아트리아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우리학교 설캠에서 퀸쿠아트리아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지속된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 참여 도모를 위해 제한적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축제를 기획한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이하 설캠 총학)는 기획 단계에서 축제 컨셉 아이디어 공모전과 문화 사업 세미나를 통해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의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를 고려해 학내 구성원이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설캠 총학은 축제 기간 동안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설캠 총학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제작 콘텐츠와 실

▲부퀴즈온더외대에 출연한 이재묵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간 진행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송출했다. 축제는 이(e)-스포츠 대회가 진행된 둘째 날을 제외하고 재학생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29초 영화제로 시작했다. 또한 재학생이 한 소절씩 노래를 이어 부른 영상인 '릴레이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실시간 콘텐츠론 △이(e)-스포츠 대회△외대 갓 탤런트△'퀸쿠하이틴스테이지' 등 비대면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외대 갓 탤런트에선 우리학교 동문인 가수 혜림(영어·EICC 17)이 심사를 맡았다. 같은 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퀸쿠하이틴스테이지의 MC를 맡은 배수연(사회·미디어 18) 씨(이하 배 씨)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한 축제를 진행한 건 처음이라 새로웠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 방법이라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 날 영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약 10,000회 이상의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한외대인' △'부퀴즈온더외대' △'21명에게 물었습니다' 등 기존 축제라면 접하지 못했을 유익한 콘텐츠도 있었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는 △교수△교직원△재학생의 모습을 조명해 학내 구성원의 결속력을 높였다. 우리학교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인 부퀴즈온더외대에 출연한 이재묵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생활이 침체된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섭외를 받아들였다"며 "이번 축제가 제한적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도 기존 축제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축제에선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뻤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퀸쿠아트리아를 관람하거나 직접 참여한 사람 중 약 94%가 '행사의 구성 및 진행 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론 약 87%가 '진행된 프로그램이 신선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약 73%의 응답자가 '실시간 송출 영상을 설캠 총학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다시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꼽았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학생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 재학생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면수업 전환 이후에도 축제가 온라인 송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에 참가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

▲외대 갓 탤런트의 출연진

율은 약 52%였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축제는 연예인 공연이 주를 이루는 대학 축제 문화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방점을 뒀다. 학생 참여를 위해 모든 콘텐츠에 학생 MC 혹은 학생 출연진 등을 섭외하고 줌(Zoom) 방청객을 모집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축제의 △기획 총괄△메인 PD△콘텐츠 연출을 맡은 조은경(국제 18) 씨는 "학내 구성원이 직접 축제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유명 연사를 섭외할 땐 학생 참여 중심의 콘텐츠를 기획한 뒤 이에 적합한 인물을 섭외하는 등 단순 공연이나 연예인 위주 기획은 지양했다"고 전했다.

프로젝트형 공모 분야에서도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설캠 총학은 "29초 영화제와 굿즈 디자인 공모전인 외굿디공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외굿디공엔 총 740명의 재학생이 굿즈 선정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축제 진행 시기가 아쉬웠단 지적이 존재한다. 우경주(사범·중교 19) 씨는 "중간고사가 가까워진 시기에 행사가 열려 볼 여유가 없었다"며 "설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행사를 즐기긴 어려웠다"고 전했다.

◆대면수업 앞둔 시점, 대학가의 축제 상황

▲릴레이송을 부르는 재학생

이번 해 대학가에선 축제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추세다.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의 경우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축제 '청파제 이리로 공원'이 숙명여대 전용 메타버스 공간 '스노우버스'에서 열린다. 스노우버스에선 숙명여대 제1캠퍼스가 구축됐으며 △개막식△소품샵△아바타 간 채팅△축제 미션 수행이 진행된다. 메타버스에 기반한 기획 이외에도 동문토크쇼와 쿠킹클래스가 예정됐다.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1일에 걸쳐 축제를 진행한 서강대학교도 메타버스 공간인 '게더타운'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까지 운영된 게더타운엔 △미로탈출△방탈출게임△틀린그림찾기 등의 컨텐츠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이 2년 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해엔 온라인 컨텐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축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삭막해진 대학 생활에서 학내 구성원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단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10.08(금) ~ 10.25(월)	2021.11.12(금) ~ 11.29(월)
고사장 발표	2021.11.03(수) 15:00	2021.12.08(수) 15:00
면접전형	2021.11.06(토) 10:00 예정	2021.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11.19(금) 15:00	2021.12.24(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11.22(월) ~ 11.26(금)	2021.12.27(월) ~ 12.3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문화엔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tics & Goverment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한일 관계에 봄 다시 찾아오나

기시다 후미오(이하 기시다 총리) 전 일본 외무대신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우리나라에선 그의 이전 정치 경력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친화적인 성향을 내비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미뤄 봤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이하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이하 스가 전 총리)의 정치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단 여론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일본 총리 취임 배경△한일 관계의 전망△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대신, 일본 100대 총리 취임

지난 9월 29일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당초 일본에선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이하 고노 담당상)이 당선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기시다 총리는 고노 담당상보다 1표 많은 256표를 얻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다. 일본 총리 선출 제도에 따라 지난달 4일 그는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외교 · 안전 보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책이란 3가지 중점 정책을 내걸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분배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을 의미한다. 외교 · 안전 보장은 주변국들로부터 일본의 국민과 영토를 지켜 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책은 일본 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일본은 이번 달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제6차 대유행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접종증명 전산화와 무료 검사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기시다 총리가 당선된 배경으론 아베 전 총리의 지원과 고노 담당상의 정책이 일본의 기업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이번 기시다 총리의 진영엔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 이마이 다카야가 참모로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1차 투표 때 3위 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가 고노 담당상의 친중 및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시다 총리와 연합한 점도 그의 총재 선출에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야당은 고노 담당상보다 기시다가 총리로 선출된 게 더 낫단 입장을 보였다. 국민들에겐 고노 담당상이 기시다 총리보다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고노 담당상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당원 득표수에선 밀렸지만 국회의원 득표수에서 앞선 덕이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기시다 총리를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활동에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자민당은 바뀌지 않는단 걸 보여준 총재 선거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일본 국민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지난달 일본의 18세 이상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는가?'란 질문에 63.2%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27.4%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달리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가 35.2%로 1위를 차지했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라서'가 20.3%로 2위를 차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열흘 만인 지난달 14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후지모토 카즈미 센슈 대학 명예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실행력을 내세우고 내각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의 전망은?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15년에 외무대신으로 재임하며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다.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합의 당시 해당 문제를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설득으로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일본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배상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 취임 후 한일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가진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스가 전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의 뼈대는 유지한 채 '매우'란 단어만 뺀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출처: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의 발언 배경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우리나라에선 위안부 합의가 옳지 못하단 비판적인 시선이 다수 존재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2월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따른 조치를 지시하며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단 뜻을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법 및 국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원인이 돼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지난 2년간 크게 악화됐다. 반도체 산업에 이용되는 △에칭가스(Hydrogen fluoride)△포토레지스트(Photoresist)△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s) 등의 품목에 수출 규제가 가해지며 우리나라는 해당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중국, 대만 등에서 수입해야 했다. 양국은 감정의 골이 깊어짐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척을 졌다.

기시다 총리의 성격과 주변 자민당 인사들과의 관계 역시 그가 우리나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지만 부드러운 성격상 아베와 다카이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을 맞아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축하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한일 관계가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후 전 세계 각국 정상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외교적 입장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미일 동맹 강화△센카쿠 ·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와는 △경제△기후변화△안보 협력을 강화하잔 내용으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또한 지난달 8일 외교 문제를 주제로 열린 도쿄 후지산 회합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위압적 행위를 반복하는 중국을 두고 "△민주주의△인권△자유란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단 입장과 납북된 일본인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의 행보에 여러 국가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내각 구성 변화가 얼어있는 한일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와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별세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지난달 30일까지 국가장 형태로 치러지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는 형태로 이뤄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5 · 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 · 12 군사 반란 등의 과오로 국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했다.

경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초기 국면 들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집값이 안정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내놨다. 집값 안정화의 근거론 △매수심리 지표△실거래가 지수△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측에선 "아직 대세 전환은 이르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회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 원까지로 인상해

방역 당국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상한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백신과 관련한 연구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분석△안전성 검토△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백신 접종 뒤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제 세계 3위 탄소 배출국 인도, "탄소중립 못 한다"

지난달 27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인도 환경부 간부 시리 굽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해결책이 아니다"며 "중립이 아닌 감축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후 위기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실현을 주요 계획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인도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인도 에너지원의 70%가 석탄 에너지인 게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호주는 최대 교역국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며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쿼드(Quad)'** 가입 등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친구'란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형성됐고, 중국은 이에 석탄을 비롯한 호주산 물품 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무역 갈등은 호주와 중국 양국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박재적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입장 차이△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자.

박재적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Q1. 최근 발생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 원인이 궁금합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은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렵 중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기간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계에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세력이 커질 걸 느낀 호주는 점점 중국을 견제하게 되죠. 특히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범지구적 확산 이후 호주가 발본지 조사를 요청하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Q1-1. 중국과 호주 양국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무역 갈등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과 같이 양국관계가 경색될 만큼 심각한 무역 갈등은 없었어요. 다만 1996년 미중 간 대만 해협 위기 시 호주가 미국편을 들어서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흔들렸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사과하며 양국관계는 다시 복원됐습니다. 지금의 중국과 호주 무역 갈등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Q2. 이번 무역 갈등이 중국과 호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5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코로나19 발본지 조사 발언이 나온 직후, 중국은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석탄 수입 금지△쇠고기 수입 금지△자국민의 호주 유학과 관광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2019년 기준 발전용 석탄의 38%를 호주로부터 수입해오는 등 1차 에너지 자원에서 호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도 석탄으로 전력을 수급하는 중국은 호주산 석탄의 대체재를 찾지 못해 공업지대의 산업 생산까지 차질을 겪는 등 전력난에 시달렸습니다. 호주는 최대 무역국 중국의 제재를 받아 수출액이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무역 규모에서의 손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올라 큰 이득을 봤기 때문이죠.

Q3. 호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호주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주의 외교적 입장과 중국의 높은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 덕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호주는 외교적 측면에서 서구권 편에 서야 한단 입장이 확고합니다. 호주는 동아시아와의 무역이 매우 중요한데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예로 2018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당시 중국의 IT기업 '화웨이(Huawei)'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호주도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기도 했죠. 오커스, 쿼드 등 미국이 속한 안보 협의체에 가입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주는 전 세계 철광석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철광석의 경우 중국이 대체재를 찾지 못해 무역 제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호주는 톤당 수출 가격을 올리며 중국의 석탄 제재에 맞섰고 무역 타격을 피하게 돼요.

Q4. 중국은 이번 무역 갈등 이후 인도네시아 및 몽골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석탄으로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주산 석탄만큼 다른 나라의 석탄은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중국은 석탄의 38%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지난해 기준 230%,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89% 늘렸지만 역부족이었죠. 호주를 제외한 수입산 석탄이 중국 석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해요. 중국은 아프리카 철광석 광산을 발굴하여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최소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의 철광석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직 중국은 대체품을 찾지 못해 노력 중입니다.

Q5. 중국과 호주 국민은 이번 무역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호주의 보수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중국 위협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호주 국민의 신뢰 또한 낮음을 알 수 있어요. 지난 6월 22일 호주 여론조사기관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가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응답자의 16%만이 '중국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위 여론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에 일반 국민도 찬성하고 있으며 반중감정이 높아 정부 행보에도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종사자들은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호주 정부의 행보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중국 내에서도 호주에 대한 반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Q6. 이번 무역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 전 세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적습니다. 양국의 문제에 타국이 함부로 끼어들 순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무역 갈등에서 동맹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당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돕지 않았단 비판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미국은 호주가 미국편을 든 데에 대한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에서 확실히 호주의 편에 서며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Q7. 우리나라는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을 통해 어떤 점을 깨달았나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무역 갈등을 통해 호주가 중국에 대응하는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철광석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시장으로 우위를 점해야 한단 여론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 노력에 동참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시장 선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Q8. 앞으로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양국 모두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전례 없는 무역 갈등을 겪었어요. 호주의 입장에서 중국은 제1 수출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일대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산 투자를 진행하는 등 호주에 의존적이었던 1차 에너지원 수입을 차차 줄여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중국도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진 호주에게 더 강경히 대응하진 못할 것입니다. 다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대체재를 찾을 것을 대비하여 호주, 미국과의 첨단산업 협력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에요.

*오커스: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이번 해 9월 15일 공식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쿼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회의체
***양안관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양채은 기자 03chae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10. 18(월) ~ 10. 22(금)	2021.11. 22(월) ~ 11. 26(금)
면접전형	2021. 11. 6.(토) 10:00	2021. 12. 1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11. 9.(금) 16:00 예정	2021. 12. 24.(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11. 22(월) ~ 26(금) 예정	2021. 12. 27(월) ~ 31(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미움받을 용기

난 항상 정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 꿈이 자주 바뀌었지만 △공익광고기획자△언론인△정치인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직업이란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남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눈치 보여 말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표로 말하기 일쑤였다. 기숙사 대표나 조합장 대표 등 학생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다. 덕분에 선생님들의 미움을 받고 당돌한 학생으로 낙인찍혔지만 친구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뿌듯했다. 가족들은 이런 나를 걱정했다. 결국 남들이 꺼리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는 게 내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해 세상을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단 막연한 정의로 가득 찼던 내가 처음으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던 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 동아리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김장 나누기 행사, 독거노인 돌보기 등의 활동을 했다. 남들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꼈다.

대학교에 진학하면 더 넓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다 외대학보에 지원했다. 외대학보 면접을 보며 스스로 여름 햇살이라고 표현했다. 따사로운 여름 햇살처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고 말이다. 외대학보 1060호에서 르포 기사 형식을 통해 대학상권 침체 현황을 알렸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번갈아 돌아다니며 취재했다. 모든 가게의 이야기를 담을 순 없었지만 최대한 많은 가게의 고충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기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상권을 취재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기사로만 접하며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우리와 맞닿은 주변의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아픔과 현실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알리는 일을 맡았단 게 신기하고 책임감이 들었다. 기자로 취재를 나가며 발로 뛰어보는 활동은 잊을 수 없었다.

외대학보는 사회를 변화시켜보겠단 내 막연한 꿈을 가리는 안개를 걷어준 곳이다. 누군간 내가 막연한 꿈을 꾸고 있으며 그저 대학신문의 기자이기에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기사를 통해 한 명이라도 깊숙한 곳에 묻혔던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쓰다 보면 누군가는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 알려야한다. 내겐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

양채은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읽고]
그곳의 행진은 계속된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내무부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2001년 미군 주도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지 20여 년 만이다. 과거 1996년부터 5년간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했을 때 여성은 교육 및 취업의 기회를 빼앗겼고 15세 이하 어린 소녀와 탈레반 대원의 강제 결혼도 빈번하게 이뤄졌다. 현재 탈레반의 임시 내각은 남성 인사로만 구성돼 있다. 여자가 공공기관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남자를 대동해야 한다. 지난 8월 탈레반 재집권 당시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아프간의 소녀 '마리암'은 15살에 40대 구두 수선공 '라시드'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된다. 남편의 일상적인 폭력과 일곱 번의 유산은 그를 병들게 했다. 결혼 후 15년이 지나도 마리암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라시드는 14살 소녀 '라일라'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마리암과 라일라는 라일라의 딸 '아지자'를 함께 돌보며 나이를 극복한 우정을 경험한다. 라일라가 다른 남자를 만났단 이유로 라시드가 그를 죽이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마리암은 삽으로 라시드를 죽인다. 그는 라일라를 위해 탈레반에 자수하며 사형을 받아들인다. 남겨진 라일라는 마리암을 기억하며 배 속 아이의 이름을 마리암으로 짓는다.

지금 아프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부르카(Burka)다.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아프간의 여성은 살기 위해 부르카를 입어야 한다. 부르카를 입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은 탈레반에게 총살당할 수 있다. 부르카는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복장이다. △눈을 제외하는 니캅(Niqab)△얼굴을 제외하는 차도르(Chador)△머리카락과 목만 가리는 히잡(Hijab)과 비교하면 가장 엄격한 복장이다. 책 속의 마리암 역시 의무적으로 부르카를 착용했다. 그녀는 "주름진 천이 입을 질식시킬 것처럼 압박하는 게 싫었다"며 "부르카는 한쪽에서만 볼 수 있게 된 창문 같았다"고 설명한다. 물론 부르카 착용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용을 선택한 것이 아닌 강요받았단 사실이다. 지금 아프간엔 수십만 명의 마리암이 존재한다. 그들의 시야를 가린 것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탈레반의 강요다.

저자 '할레드 호세이니'는 소설에서 정치가 아닌 인간을 보라고 강조한다. 아프간은 수십 년간 전쟁의 폭력을 견뎌냈고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작가는 지난 8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아프간은 수많은 여성이 판사와 공무원으로 일하던 자유로운 곳이었다"며 "아프간 여성의 목소리가 잠잠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도 카불에선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최루탄과 총을 이용한 탈레반의 강압적인 대응에도 수많은 사람의 행진이 카불 거리를 채운다. 그들은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며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 구성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보여라"고 요구한다. 난 그들의 행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카불의 거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꿈과 사랑의 경계

라라랜드는 배우 지망생 '미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꿈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미아는 오디션을 보며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세바스찬은 식당에서 프리랜서로 연주하며 자신만의 재즈클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미아와 세바스찬은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미아의 집안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길 바라자 세바스찬은 미아를 위해 정통 재즈만을 연주하겠단 신념을 버리고 성공이 보장된 재즈팝 밴드에 들어간다. 세바스찬은 성공으로 많은 부를 얻지만 꿈과 멀어진 본인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미아도 돈을 따라가지 않고 꿈을 이뤄가는 세바스찬의 모습을 응원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현실과 사랑 사이 문제에 직면하고 헤어짐을 선택한다. 이후 미아는 유명 배우로 성공하고, 세바스찬은 재즈팝 밴드 탈퇴 후 자신이 원하던 정통 재즈클럽을 열며 꿈을 이룬다. 시간이 흐른 뒤 미아는 우연히 세바스찬의 재즈클럽에서 그의 연주를 듣고 서로 꿈을 이뤘음을 확인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이야기는 이 시대 청춘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과 사랑의 경계를 보여준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린 꿈과 사랑이란 현실에서 갈등하게 된다. 한쪽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생은 다양한 경험의 연속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성공과 실패 중 하나로 정의 내려 판단할 수 없다. 인생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주인공들의 사랑이 실패하고 꿈을 이룬 건 어느 한쪽의 측면으로만 판단될 게 아닌 주인공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들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의 그들을 만든 건 수많은 경험과 도전이다.

라라랜드의 아름다운 영상과 색감은 그들의 삶은 더 찬란하게, 이상은 더욱 환상으로 묘사하며 치열하게 꿈과 사랑을 경험하는 청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모든 청춘들의 삶을 대변하는 미아와 세바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준다. 우리의 꿈과 사랑을 포함한 모든 삶도 돌아보면 라라랜드의 아름다운 필름처럼 남겨질 것이다. 지금도 꿈과 사랑을 좇아 찬란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한다.

양채은 기자 03chaeeun@hufs.ac.kr

1060호 학보를 읽고

다양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명나디 (일본 · 융일지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어느덧 추석이 지났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다 보니 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고 있다. 익숙함의 문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현상에서도 위험을 야기한다. 익숙함에 빠져 의문을 갖지 않는 상황은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독이 된다.

외대학보 1059호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념을 꼬집는 기사가 있어 흥미로웠다. 3면에선 4B 운동과 변화하는 20대의 가치관에 대해 다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 또한 △성관계△연애△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했다. 이렇듯 현재 20대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다.

4면의 총장선거에 관한 기사에서도 '왜 총장 선거 시 학생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가'란 의문이 총장선거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선 총장선거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서술해 우리학교 학생의 민주 선거를 위한 노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많은 학생이 총장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총장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부족했던 정보를 채워줄 수 있었다.

꾸준히 화두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기사에도 관심이 갔다. 아직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조건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빈틈이 많은 점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관련 인식이 나아지고 있고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1059호는 우리에게 '왜?'란 물음을 던졌다. 우리가 당연시한 일에 의문을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 용기를 갖고 나서야 하는 일이다. 이번 학보를 읽으며 용기를 갖고 틀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용기를 가진 사람과 이런 노력을 신문을 통해 비춰주는 외대학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1060호 학보를 읽고

대학의 뉴노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심현정 (국제 · 프랑스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선포하며 우리학교도 11월부터 대면 강의를 시행한다. 여러 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용설명회△온라인 축제△온라인 화상수업 등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대학이 추구한 언택트(Untact) 방식이 학생을 위한 방향이었는지 확언할 수 없다. 대학은 학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학생의 다양한 활동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존재해야 한다.

1060호에선 비대면 방침에 의해 사각지대로 밀려난 대학생활을 재조명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3면에선 동아리의 언택트 활동에 대한 학생의 불만사항과 이로 인해 퇴보하는 동아리 문화를 담았다. 해당 기사를 통해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알게 됐다.

4면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급감을 겪은 대학가 주변 소상공인의 고충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특히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상권이 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돼 주 소비자층의 상실로 인한 타격이 크단 점이 강조됐다. 학교 앞 상권의 불황은 학생 간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을 포함한 주변 상권이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주변 상권을 살릴 대책 강구가 시급하단 점을 알 수 있다.

5면에선 문해력 저하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문해력 수준이 낮단 사실을 다뤘다. 이 설문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 또한 긴 호흡의 글에 부담을 느낀단 사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된 교육 외에도 문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1년간의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뉴노멀 시대란 말이 있다. 위기에 무력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던 과거와 달리 현시점부턴 학생이 대학의 모든 활동을 누리기 위해 진정한 뉴노멀에 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 내 차별을 받는 집단이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동선이 밝혀지자 확진자가 이태원에 위치한 성소수자 클럽을 다녀갔단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사태엔 '이태원 게이클럽 집단 감염' 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불안에 떨던 시기에 좁고 밀폐된 공간인 클럽에 방문했단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집단 확진 사태에서 퍼진 논란의 불씨는 아무런 죄가 없는 성소수자 집단 전체를 향했다. 여론은 비판을 넘어 그들의 성 지향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일부 혐오 세력은 이때다 싶어 자신이 성소수자라 밝힌 유명 연예인의 sns를 찾아가 폭언을 쏟아붓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마녀사냥은 확진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됐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기득권층에 맞서 어느 집단보다 진보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대학에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존재했다. 외대학보 1061호 3면 기사는 우리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소수자 차별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달 6일 하반기 제1차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에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 (이하 외행성)의 중앙동아리 가인준 등록이 부결됐다. 외행성 측은 이번 부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종교봉사2분과위원장(이하 종교2분과장)이 외행성 운영진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가인준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며, 외행성에게 추천서를 써준 IVF 회장에게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전동대회의 투표 결과 종교2분과에 속한 7개의 기독교 동아리와 1명의 분과위원장이 외행성의 가인준을 반대했고, 결국 외행성은 중앙동아리로 정식 승격되지 못했다.

세상은 예민과 피해의식이란 단어로 피해자를 지운다. 어떤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혐오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저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할 뿐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차별을 알리기까지 끊임없는 고민을 한다. 성소수자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 그들의 존재는 지워지지 않으며 지우려 해서도 안된다. 세상은 변화하고 낡은 가치관을 가진 이는 도태된다.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가 주류 영역에서 빗겨나 비가시화된 상태에 머무를 순 없다. 우리 사회 내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러 소수자가 당당히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 수많은 차별을 무릅쓰고 우리학교 성소수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낸 외행성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김민주 부장 01minju@hufs.ac.kr

외대인의 목소리

독자 칼럼

수술실 CCTV, 마음놓고 눈 감는 그날이 오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2년간의 유예가 주어졌다. 땅속에서 수 년을 지내는 매미도 아니고, 수술실에 카메라 하나 다는 데 이다지도 오래 걸렸다. 척추 전문병원에서 행정 인력이 대리 수술을 실시하던 행태가 고발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던 사지 멀쩡한 청년이 과다출혈로 세상을 떴다. 인권 유린 및 범죄 행위가 도무지 자정이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러니 마취약이 몸 안에 퍼질 때 마음 한켠에서 의심이 피어날 수밖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긴 시간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환자단체와 의료협회가 만전을 기했던 탓이었다. 미용수술 사망사고 발생 후 성형외과들은 앞다투어 CCTV를 설치하고 '안심수술 병원' 이라는 홍보문구까지 내걸었다. 그럼에도 의무화는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결실을 맺나 했더니 의료계가 복병이었다. 의료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해킹 우려 등을 빌미로 예외 조항을 끌어와 제동을 걸었다. 외국의 선례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건, 의료분야도 서비스업의 성격을 띈다. 하루에 수십 수백여 명의 환자를 만나다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건 다반사다. CCTV 전면 설치와 의무화가 본격화된다면 '감시 당하는' 기분에 부담이 더해져 진료 위축을 우려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경우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보다 유령수술, 인권유린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 공익수호 측면에서의 이점이 크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료소송분쟁 면에서는 수술전 작성한 각종 동의서보다 CCTV가 오히려 와일드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CCTV 의무화와 의료진 기본권 보장과 관련 법안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의료진의 수행을 믿더라도 환자는 의식 잃은 동안의 공백에 두려움이 생긴다. 미디어에서 풀어내는 각종 사고는 이를 뒷받침한다. 무방비하게 신체와 환부를 노출한 환자도 어느 정도는 희생을 감수하며 이행하는 정책이다. 의협은 국소 마취니 위험도니 하며 병원측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는 예외 조항을 끼워 넣었다. 푸른 수술용 천으로 가리면 못 보는 건 매한가지다. 위험도 높은 수술의 방어적 치료가 CCTV 설치 못할 근거는 아니다. 현재의 합의점 탐색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게 불보듯 뻔한데 장애물을 추가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

오래 걸린만큼 물샐틈없이 제정되길 기원했다. 첫술에 배부를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첫 선례를 만들자. 의료진 입장에서 지겹도록 마주하는 병증과 수술이라도, 환자 본인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인생의 고비다. 미룰 만큼 미뤘다. 수술에 임하는 환자가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도록, 선진의료를 이끌어 나갈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제은(중국어 · 중언문 16)

사설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본 한국의 역할

지난달 30일과 31일엔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1월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가 예정됐으나,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방식으로 복귀한 것이다. 다만 △중국△러시아△일본△멕시코 의 정상△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는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위기 해소△팬데믹 위기 극복 및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G20은 전 세계 20개 주요국의 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비롯해, 재무장관회의,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G20을 담당하는 국제협력대사(셰르파) 제도를 운영한다. 셰르파는 연중 다양한 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상회의 의제를 발굴, 결정한다. G20은 1999년에 주요 선진국의 신흥국 재무장관 회의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첫 회의는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은 2010년 의장국을 맡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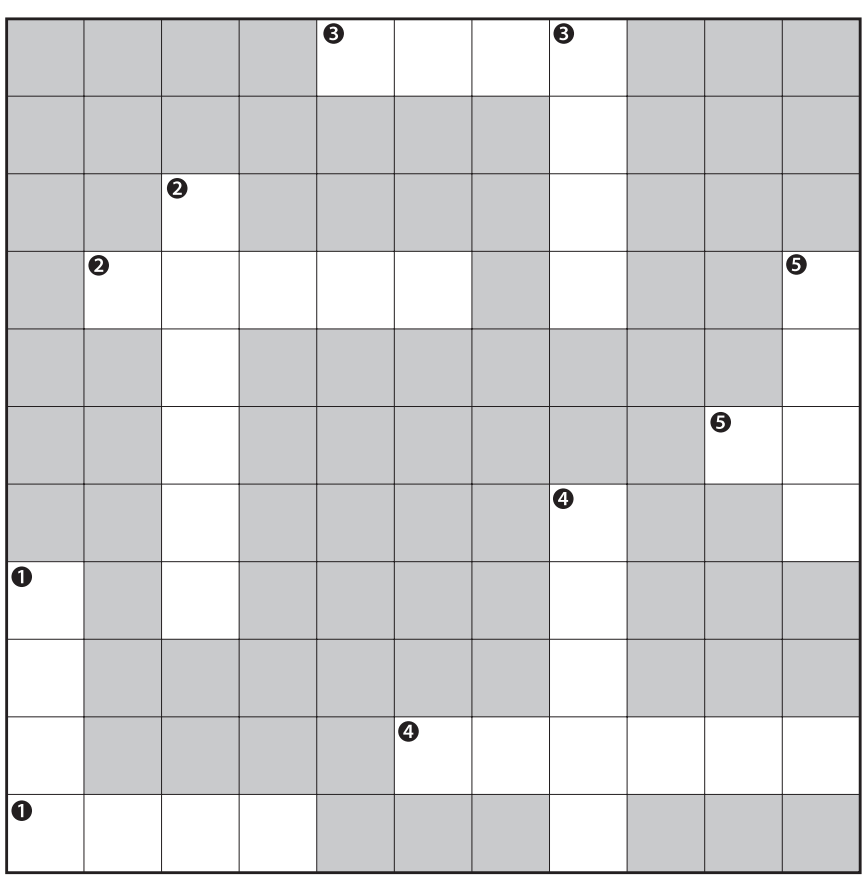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비해 G20은 더 광범위한 협의체다. 주요 선진국 외에도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참여한다. 참여국 수를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절반씩이다. 그렇다보니 양측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전 지구적, 포괄적 이슈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G20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민총생산(GDP)의 84%를 차지하기에 주요 논제에 대해 국제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동료압박(peer pressure)으로 작용한다.

G20이 한국에 갖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개방형 다자협의체와 달리 회원국 수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중견국은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주요 의제에 대해 정교한 정책을 개발, 공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G20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주요국 간에 대립이 있을 때, 중견국은 일정 부분 중재역할을 맡을 수 있다. 지난해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전 세계가 힘을 모았다. 그런데 회복과정에서는 수면아래 있던 상이한 이해관계가 다시 표면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는 중견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외교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G20에서 도출된 결론은 국제기준 또는 규범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구속력은 없지만 G20의 공동성명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돌출행동은 어렵다.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쌓아온 외교적 자산과 명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G20,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 등 준(準)다자협의체는 양자외교나 다자외교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평화, 공동번영, 자유무역 등의 가치를 역설함으로써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위험을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한국은 1996년에 이미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부터 한국을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y)으로 분류해 왔다. 2019년에는 국제무역기구(WTO)에서 그동안 고수했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선진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더 크다. G20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만나는 협의체이며,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만큼 가교역할이 가능하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공정무역, 개발지원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선진규범이 정치 · 경제 ·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가로

1. 전동대회에서 나온 투표 결과와 종교2분과장의 추천서 철회 압박 행위가 ○○○○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단 것이다. (3면 참조)
2.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대신이 ○○○○○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8면 참조)
3. ○○○○론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다. (5면 참조)
4. 지난 9월 김규진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명예교수가 체코의 ○○○○○○ 번역상을 수상했다. (1면 참조)
5. 특히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지구적 확산 이후 ○○가 중국 발본지 조사를 요청하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9면 참조)

세로

1. 미래 선도형 융복합 교육모델 개발 및 혁신을 목표로 한 융합인재대학을 신설해 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융합 ○○○○의 제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4면 참조)
2. 이번 ○○○○○○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안보를 주제로 유럽연합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2면 참조)
3. 이번 축제는 연예인 공연이 주를 이루는 ○○○○ 문화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방점을 뒀다. (7면 참조)
4. 이를 계기로 ○○○○○가 높은 사람이 청탁을 하더라도 절대 불공정한 판단을 내려선 안된단 생각을 갖게 됐죠. (12면 참조)
5. 그들은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 며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 구성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를 보여라" 고 요구한다. (10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 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1hyunik@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김현익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올곧은 신념을 따라 시민을 지키는 김정훈 경찰서장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 김정훈(자연 · 전산 83) 여주경찰서장(이하 김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막는 경찰이다. 김 서장은 우리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뒤 △공공안전과장△보령경찰서장△여성청소년과장△정보과장△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등 여러 직책을 거쳐 이번 해 7월 여주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Q1.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단 생각을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 유망하단 선배의 말에 우리학교 전자계산학과에 지원했죠. 당시 우리나라에 개인 컴퓨터 보급이 막 이뤄지고 전자계산학과가 처음 생길 때라 타자기가 아닌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생소했어요. 데이터와 파일 같은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용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동기끼리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에게 필요한 과목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Q2. 경찰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졸업 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는 게 국비장학생 선발 조건이었어요. 1980년대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학생이 정부가 정한 직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죠. 2학년 때 어머니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국비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습니다. 매해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보다 한 학기 학비가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정부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봉사하고 싶단 마음도 생겼습니다.

Q3. 우리학교 학사장교 9기로 군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학사장교 활동이 경찰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학사장교 생활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물론 훈련에선 소대장으로서 △독도법△소 · 중대 전투△화생방을 가르쳤죠. 그러나 훈련 외 생활에선 소대원과의 인간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위험한 상황인 만큼 소대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어요. 덕분에 경찰이 됐을 때도 일을 하며 마주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Q4. 오랜 경찰 생활 중 가장 보람찼던 직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을 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여성청소년과는 주로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를 다룹니다. 이웃의 신고로 어머니와 두 딸이 사는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었죠.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회보호 단체와 함께 집 안에 있는 4t 정도의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생필품△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위해 힘썼단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죠.

Q5.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정보과장을 했을 때입니다.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국내외 단체가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어요. 시위를 통제했고 정상들이 묵는 호텔과 주변 시설의 안전을 담당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을 함께 할 수 있단 것이 기억에 남네요.

Q6. 경찰이 갖는 직업적 고충이 있나요?

365일 내내 근무 인력이 필요하단 점입니다. 경찰은 퇴근 이후는 물론 명절과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죠. 또한 주말에도 출근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Q7. 경찰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정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여럿 봤어요. 이를 계기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청탁을 하더라도 절대 불공정한 판단을 내려선 안된단 생각을 갖게 됐죠.

Q8. 일을 하는 시간 외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젊을 땐 테니스와 등산을 즐겼어요. 지금은 관내에 있으란 지시를 받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하곤 합니다. 시간이 날 땐 골프연습장에 가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Q9. 이번 해 7월 여주경찰서장에 취임하셨는데 경찰서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여주 시민에게 안정적인 치안과 믿음직한 사회구조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잔 목표를 넘어 카메라나 속도제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여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Q10. 경찰 '김정훈'이 아닌 사람 '김정훈'이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경찰서장이란 직함은 국가가 준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권한의 무게만큼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직함을 내려놓고도 해당 권한을 가진 것처럼 대우를 바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정년퇴직이 2년 남은 지금,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11. 경찰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에겐 공정함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가족△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사회적 약자△지인이 찾아와도 사건과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또한 불합리한 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항상 인내심이 필요한 직업이죠.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잘 계시는지,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